

## 스포츠관광 활성화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 5. 28. 장미란 제2차관, ‘스포츠관광 활성화 민관협의체’ 단장으로 1차 회의 참석
- 스포츠관광 민관 협업사업 발굴, 스포츠관광 활성화 추진방안 등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케이-관광의 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5월 28일(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종로구)에서 ‘스포츠관광 활성화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이 단장으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스포츠관광의 비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관광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 스포츠관광 활성화 위해 새로운 민관협업체계 구축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12일에 열린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의 후속 조치로서 단장 장미란 차관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 등의 공공기관 관계자, 스포츠와 관광 분야 학계 3인, 스포츠관광 업계 관계자 2인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체에서는 스포츠관광 민관 협업사업을 발굴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스포츠관광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공기관인 관광공사와 체육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등 3개 기관과 민간단체인 한국이(e)스포츠협회는 각 기관이 보유한 스포츠 기반시설과 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연계망 등을 통해 스포츠관광 목적지로서 대한민국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유인촌 장관이 주재한 확대기관장회의(12. 7.) 결과에 따른 것이다.

## 민간위원 위촉, ‘스포츠관광 활성화 전담팀’ 추진현황 등 논의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관광공사가 지난 3월 15일에 구성한 ‘스포츠관광 활성화 전담팀’ 추진현황과 계획을 살펴보고 스포츠관광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착수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위촉식도 진행한다. 장미란 차관은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스포츠관광 지원 정책은 동계스포츠 종목 마케팅이나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와 연계한 계기성 마케팅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민관협업체계(거버넌스)를 활용해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스포츠 인적교류 활동을 관광과 연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는 케이-스포츠가 종주국인 태권도와 이(e)스포츠를 비롯해 관련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자전거·트레킹 등으로 지원 종목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민관협의체는 스포츠와 관광 두 분야의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민관협업체계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2024년 한 해를 스포츠관광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책임자	과장	윤용한 (044-203-2881)
		담당자	사무관	이규원 (044-203-2885)

